

1 학기 동안의 비대면 유학생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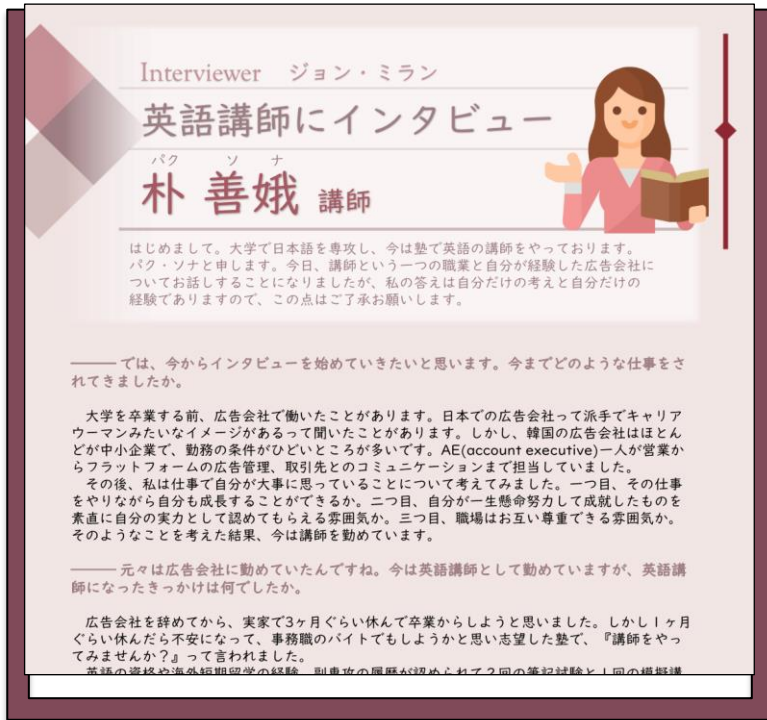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장기교환학생(1년)으로 선발되어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수업을 듣게 된 지도 벌써 1 학기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1 학기 동안 제가 경험한 유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2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2020년 1 학기부터 1년간 유학을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유학이 1년 연기되었고, 2021년도 1 학기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일본 내의 감염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는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1 학기의 유학을 끝마쳤습니다.

유학이 결정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수강신청입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부의 수업은 들을 수 없었고, 유학생 수업 중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HR’을 포함해 최소 8개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에, 총 8개의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수업은 ‘zoom’이라는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중국, 터키,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소규모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과제는 서로 연락처를 공유해 zoom으로 회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유학생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수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은 ‘일본어사정연습 5A’와 ‘일본어연습 3A’ 수업입니다. 먼저, ‘일본어사정연습 5A’수업은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대학생과 유학생 그리고 부산외대의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는 원격 수업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더 공부하여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Interviewer ジョン・ミラン

英語講師にインタビュー

パク ソナ
朴善娥 講師

はじめまして。大学で日本語を専攻し、今は塾で英語の講師をやっております。パク・ソナと申します。今日、講師という一つの職業と自分が経験した広告会社についてお話し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私の答えは自分だけの考えと自分だけの経験でありますので、この点はご了承ください。

——では、今からインタビューを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までのような仕事をされてきましたか。

大学を卒業する前、広告会社に働いたことがあります。日本での広告会社って派手でキャリアウーマン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るっ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韓国の広告会社はほとんどが中小企業で、勤務の条件がひどいところが多いです。AE(account executive)一人が営業からフラットフォームの広告管理、取引先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まで担当していました。

その後、私は仕事で自分が大事に思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た。一つ目、その仕事をやりながら自分も成長することができるか、二つ目、自分が一生懸命努力して成就したものを素直に自分の実力として認めてもらえる雰囲気か。三つ目、職場はお互い尊重できる雰囲気か。そのようなことを考えた結果、今は講師を勤めています。

——元々は広告会社に勤めていたんですね。今は英語講師として勤めていますが、英語講師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たか。

広告会社を辞めてから、実家で3ヶ月ぐらい休んで卒業からしようと思いました。しかし1ヶ月ぐらい休んだら不安になって、事務職のバイトでもしようかと思いましたが、『講師をやってみませんか?』って言われました。

英語の資格や海外短期留学の経験、制作者の履歴が認められて2回の筆記試験と1回の模擬講

그리고 ‘일본어연습 3A’ 수업은 학생들이 각자 인터뷰를 해서 소책자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인터뷰 대상부터 소책자의 디자인이나 발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는 수업이었기에 매우 보람찬 수업이었습니다. 완성된 소책자는 각자 소지할 수 있으므로 유학이 끝난 뒤 하나의 뜻깊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1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많은 교수님과 유학생,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제 시야도 더 넓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일본에서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교관인 모리야마 교수님, 일본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매달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기와라 교수님과 마즈다 교수님, 교환학생인 저를 보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신 코우 교수님과 니시자카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